

##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박 보 람

양 난 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남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198명이었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 수행회피 성취목표 척도,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 학업적 지연행동 척도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4개를 구성하여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고, 최적의 모형에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 완전 매개하는 경쟁모형 4가 최적의 모형으로 확인되었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들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학업적 지연행동

\* 본 연구는 박보람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양난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E-mail: behelper@gnu.ac.kr

숙제나 시험공부, 청소와 빨래 같은 해야 할 일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지만 미루는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한다. 이런 행동을 지연행동이라고 하는데 지연행동은 일상생활, 대인관계,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지연행동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mmett, 2000).

지연행동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지만 대학생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연행동을 하는 대학생은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Haycock, 1993)에서 70%(Ferrari et al)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18세에서 7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지연행동을 조사한 McCown과 Robert (1994)는 20대의 지연행동이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연행동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서은희,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지연행동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사와 학부모의 감시아래 수동적인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학교와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사라진 대학생생활에서 지연행동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연행동 중에서 학업영역에서 나타나는 지연행동을 일반적 지연행동과 구분하여 학업적 지연행동이라고 하는데 학업적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보고서 작성, 시험공부, 과제

모임, 교수면담, 행정처리 등 학업과 관련된 일을 미루기 때문에 일을 마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학업적 지연행동은 대학생들에게서 매우 보편적인데 미국의 경우 80-95%정도가 학업적 지연행동을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50%에 이르렀고(Steel,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6.4-66.3%(윤숙경, 1997)가 학업적 지연행동을 보인다고 응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10)에서 진행한 신입생 특성 조사에 따르면 대학신입생들의 고민은 대인관계문제(21.2%), 진로문제(21.2%), 경제문제(19.2%)에 이어 학업문제가 17.8%에 이르고 신입생들이 대학입학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전공공부(40.4%)인 것으로 응답해 학업문제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줄이는 것은 대학생들의 학업문제 해결과 대학생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되어 왔다(이미라, 2004; Solomon & Rothblum, 1984). Hewitt와 Flett(1991)에 의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되면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는데,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지향적인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해 엄격한 기

준을 정하여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있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 가지 차원의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어 세 차원의 완벽주의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완벽주의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정적인 관련이 있고(박재우, 권정혜, 1998; Martin, Flett, Hewitt, et al., 1996; Onwuenbuzie, 2000) 지연행동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의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Beck, Koons, & Milgrim, 2000; Eerde, 2003; Flett & Hewitt, 2006; Steel, 2007). 이에 따라 국내의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두 변인사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취목표지향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등의 변인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이수민 & 양난미, 2011; 임성문, 강미정, 2006; 한영숙,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먼저,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고려하였다. 수행회피 성취목표는 행동을 할 때 타인과 비교하여 열등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실패를 회피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념패턴을 의미한다. 수행회

피 성취목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어내고 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므로 이런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나 학업적 지연행동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수행회피 성취목표 간의 관계를 검증한 이미화와 류진혜(2002)는 완벽주의의 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이 수행회피 성취목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지연행동을 연구한 Howell과 Watson(2007)은 이 두 변인이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상엽과 임성문(2009)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에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수행회피 성취목표는 모두 학업적 지연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수행회피 성취목표는 두 변인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아지며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아질수록 학업적 지연행동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라는 점과 직접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학업적 지연행동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가 동일한지, 더해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은 중

요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그들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Hewitt & Flett, 1991) 평가상황에서 무능해보이지 않기 위해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아름, 2009).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Berglas & Jones(1978)이 제안한 개념으로 예상되는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실패를 외부로 귀인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보통 수행성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미리 선택하여 수행결과가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내일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밤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나쁜 성적을 받는 원인이 ‘머리가 나빠서’와 같이 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비의도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지연행동, 노력하지 않기,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 선택하기 등 다양하다. 즉, 개인은 자기구실만들기 전략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보호할 수 있지만(조민경, 2010) 수행결과와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Zuckerman, Kieffer, & Knee, 1998).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학업적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도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김아름, 2009)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도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고영

춘, 2007; 김연희, 2006; 송재홍, 2008; Urdan & Midgley, 2001), 마지막으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학업적 지연행동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Beck, Koons, & Milgrim, 2000; Eerde, 2003; Steel, 2007).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아질수록, 수행회피 성취목표성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업적 지연행동이 높아질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도 함께 높아졌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함께 살펴본 오지은, 임성문과 추상엽(2011)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사이의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중고등학생일수록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가지는 경향이 높았으며 또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 역시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구조적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단순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을 한 경우가 많아서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변인을 통해 구조적으로 재규명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

략과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하고 경로의 유의미성을 확인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자기구실 만들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업적 지연행동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더해서 본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 빈도가 가장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지연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지연행동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들의 학업문제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미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추상엽, 임성문, 2009)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간의 관계(오지은, 임성문, 추상엽, 2011)를 검증한 연구가 있기에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네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4개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모델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모형을 개발할 때 연구자는 단일 모형을 확인하는 방식, 탐색적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방식, 경쟁모형을 비교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Jöreskog, 1993). 단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설정한 모형이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모형임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문수백, 2009). 이에 비해 탐색적으로 모형을 개발하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론적 고려없이 통계적 결과에 근거하며 모형을 개발함에 따라 다른 자료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부 변인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하여 복수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모형을 비교하는 경우, 추론된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전체 변인에 대해서 이미 확인된 유일한 모형이 없고 일부 변인간의 관계를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때 이를 근거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사이를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부분매개하고(오지은, 임성문, 추상엽, 201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추상엽, 임성문, 2009). 이 모형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개입할 때 이들의 완벽주의 경향뿐만 아니라 수행목표에 대한 태도와 행동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일치하지 않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4개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였다. 경쟁모형1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으로 모든 변인간의 관계를 가정한 포화모형이다. 이 모형은 연구모형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의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통한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이다(박재우, 권정혜, 1998; 이수민, 양난미, 2011; Martin, Flett, Hewitt, et al., 1996; Onwuenbuzie, 2000). 다음으로 경쟁모형2는 연구모형에서 수행성취 목표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에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완전매개를 가정한 모형이며, 경쟁모형3은 연구모형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간에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완전매개를 가정한 모형이다. 경쟁모

형2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통해서 학업적 지연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경쟁모형3은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통해서 학업적 지연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모형4는 모든 매개효과를 완전매개로 가정한 모형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간에는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개입할 때 이들의 완벽주의보다는 수행목표에 대한 태도와 행동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모형비교를 통해 이들 변인 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고, 밝혀진 최적의 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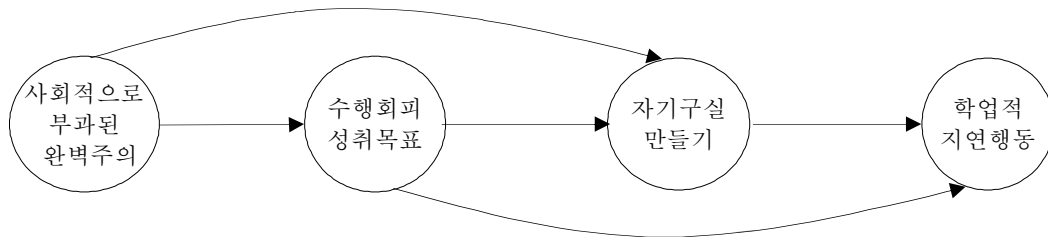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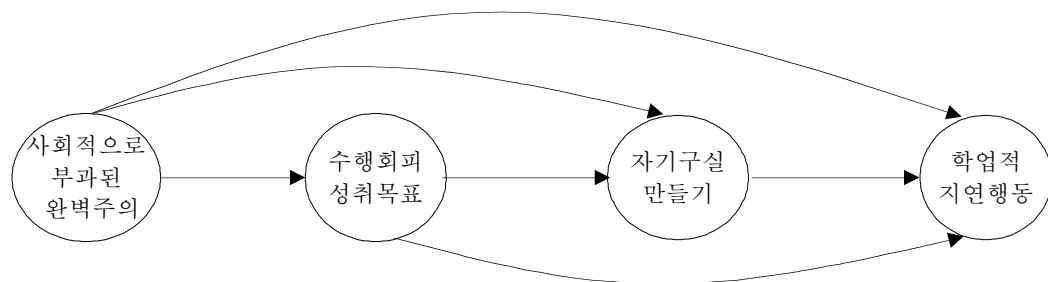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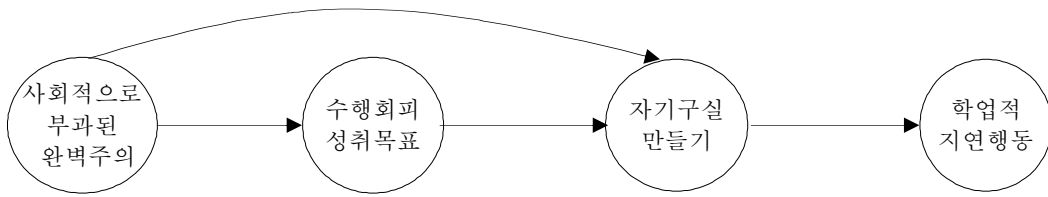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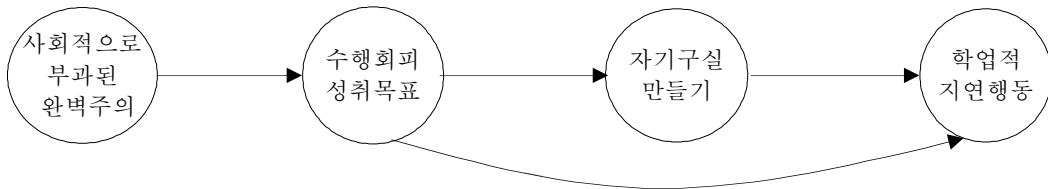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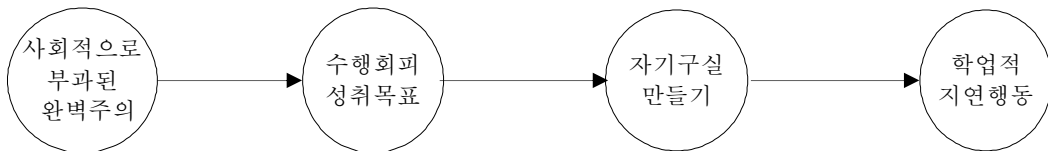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 4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 학업적 지연행동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간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과 경남에 소재한 3개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대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총 19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198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은 122명(61.6%), 여학생은 74명(37.4%), 성별에 대한 미확인이 2명(1.0%)이었고 참여자의 연령은 18세-27세 사이였으며, 평균연령은 21.2세(SD=2.32)이었다. 참여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59명(29.8%), 2학년 56명(28.3%), 3학년 68명(34.3%), 4학년 이상이 13명(6.6%), 학년에 대한 미확인이 2명(1.0%)이었고 전공은 인문·사회과학이 100명(50.5%), 자연 및 공과계열이 94명(47.5%), 예체능계열이 1명(0.5%), 기타는 1명(0.5%), 무응답은 2명(1.0%)이었다. 설문지는 수업시간에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실

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 측정도구

##### 학업적 지연행동 척도

학업적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박재우(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성적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을 선별해내기 위해 개발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Aitken(1982)에서 *Cronbach's alpha*는 .82, 박재우(1998)에서는 .59,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수정, 보완한 척도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MPS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가지 하위차원,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이다. 이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1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만을 사용하였고, 다른 척도와의 동일성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Hewitt와 Flett(1991)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이수민과 양난미(2011)에서는 .71,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 수행회피 성취목표 지향성 척도

수행회피 성취목표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Elliot과 Church(1997)가 개발, 타당화한 Achievement Goal Items를 황지희(2007)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Achievement Goal Items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각각에 대해 6문항씩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동일성을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세 하위 차원 중 수행회피목표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수행회피 성취목표 지향성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과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lliot과 Church(1997)에서 수행회피목표의 *Cronbach's alpha*는 .77, 황지희(2007)는 .75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

자기구실 만들기를 측정하기 위해 Jones와 Rhodewalt(1982)가 제작한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Self-Handicapping Scale; SHS)를 류정희(2006)가 번안한 것을 김아름(200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발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클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25개 문항에 대한 Rhodewalt(1984; 김아름 2009에서 재인용)의 주성분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김아름(2009)이 추출한 12문항(1, 2, 4, 7, 8, 9, 15, 16, 17, 18, 19, 25)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척도와의 동일성을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Jones와 Rhodewalt(1982)의 SHS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가 .79, 1개월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였고, 김아름(2009)에서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 분석방법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척도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alpha*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모형과 4개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에 앞서 결측치는 기대-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방식으로 처리하였고, 각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와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왜도 2이상 혹은 첨도 7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고 이상치는 Mahalanobis d-squared값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구실 만들기 및 학업적 지연행동 모두 단일변인이었기 때문에 Russel, Kahn, Spoth 등(1998)의 권유에 따라 3개의 문항꾸러미(Item-Parcell)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이때 문항꾸러미는 각 잠재변수가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도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배분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

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RMSEA, TLI, CFI, GFI를 사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Hu & Bentler, 1999). 반면, TLI, CFI, G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 혹은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배병렬, 200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내재된 모형이므로 내재된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와 더불어  $\chi^2$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07). 검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 김진호, 홍세희와 추병대(2007)의 권유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예비분석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적 지연행동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왜도는 -.35에서 .25사이였고, 첨도는 -.36에서 1.01사이로 모든 측정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변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회피	자기구실	학업적 지연행동	M	SD
사회부과완벽주의	-				3.10	.40
수행회피	.48**	-			3.41	.70
자기구실	.30**	.42**	-		3.07	.57
학업지연	.02	.17*	.26**	-	2.97	.44

N=198, \* < .05, \*\* < .01  
\* p \*\* p

표 2. 측정변수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40**	-										
3	.45**	.39**	-									
4	.31**	.25**	.43**	-								
5	.27**	.36**	.38**	.56**	-							
6	.22**	.26**	.42**	.66**	.52**	-						
7	.03	.22**	.33**	.25**	.34**	.30**	-					
8	.03	.17*	.32**	.23**	.33**	.20**	.53**	-				
9	.14*	.18*	.33**	.28**	.37**	.36**	.60**	.48**	-			
10	-.09	.08	.00	.20**	.08	.09	.13	.30**	.11	-		
11	-.10	-.02	-.01	.13	.03	.04	.07	.19**	.08	.63**	-	
12	-.05	.19**	.15*	.20**	.16*	.15*	.22**	.36**	.20**	.54**	.50**	-
M	3.22	2.96	3.13	3.46	3.33	3.43	2.94	2.93	3.33	3.02	3.03	2.87
SD	.52	.50	.50	.81	.86	.82	.71	.69	.66	.49	.54	.53

주. 1, 2, 3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3개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4, 5, 6은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3개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다. 7, 8, 9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3개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10, 11, 12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3개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다.  
N=198, \* < .05, \*\* < .01  
\* p \*\* p

알 수 있었다. 또한 Mahalanobis d-squared를 검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한 결과 가장 큰 값이 36.74( $p < .05$ )로 이상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경로계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회완벽요인1	1.00			.79
사회완벽요인2	.68	.11	6.06	.53***
사회완벽요인3	.75	.12	6.38	.57***
수행회피 성취목표				
수행회피요인1	1.00			.82
수행회피요인2	.90	.10	9.41	.69***
수행회피요인3	.96	.09	10.39	.78***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자기구실요인1	1.00			.78
자기구실요인2	.83	.10	8.16	.67***
자기구실요인3	.90	.10	8.69	.75***
학업적 지연행동				
학업지연요인1	1.00			.82
학업지연요인2	1.01	.12	8.69	.75***
학업지연요인3	.87	.11	8.21	.67***

N=198, \*\*\*  $p < .001$

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 $df=48, N=198$ )=92.099( $p=.000$ ), RMSEA=.068의 보통 적합도를 보였고 GFI=.931, TLI=.921, CFI=.943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모수추정치들 표 3에 제시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은 .53-.79, 수행회피 성취목표는 .69-.82,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67-.78, 학업적 지연행동은 .67-.82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 모형비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2, 3, 4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2, 3, 4 모두 RMSEA도 .08 이하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이고 TLI, GFI, CFI가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든 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5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

표 4. 모형 간 적합도 지수 비교

	$\chi^2$	df	$\Delta\chi^2$ (연구모형과 비교)	$\Delta\chi^2$ (경쟁모형4와 비교)	RMSEA	TLI	GFI	CFI
연구모형	95.797	49			.070	.918	.928	.939
경쟁모형1	92.099	48	3.698(1)		.068	.921	.931	.943
경쟁모형2	96.186	50	.389(1)	2.681(1)	.068	.921	.928	.940
경쟁모형3	98.575	50	2.778(1)	.274(1)	.070	.916	.926	.937
경쟁모형4	98.849	51	3.052(2)		.069	.919	.926	.938

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경쟁모형1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 3, 4에 비해 TLI, GFI, CFI, RMSEA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은  $\Delta\chi^2(1)=3.698$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보다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 3, 4를 비교해 보면 경쟁모형2와는  $\Delta\chi^2(1)=.389$ , 경쟁모형3과는  $\Delta\chi^2(1)=2.778$ , 경쟁모형4와는  $\Delta\chi^2(2)=3.052$ 로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연구모형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2, 3, 4가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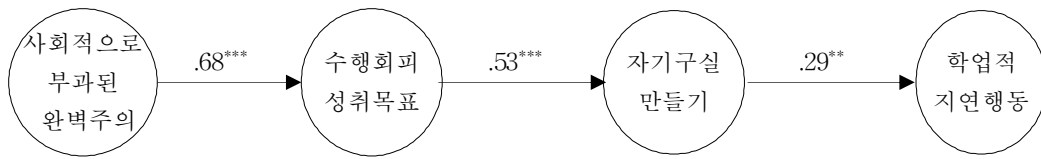
따라서 가장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4와 경쟁모형2, 3을 다시 비교하여 가장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간의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쟁모형4와 경쟁모형2는  $\Delta\chi^2(1)=2.681$ , 경쟁모형4와 경쟁모형3은  $\Delta\chi^2(1)=.274$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쟁모형4가 경쟁모형2, 3과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이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4가 가장 좋은 모형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적합도 지수비교와  $\chi^2$  차이검증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chi^2$  차이검증의 결과에 따라 5개 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4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 구조모형 검증

모형비교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 학업적 지연행동 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타난 경쟁모형4의 모수추정치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로검증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로, 수행회피 성취목표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으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서 학업적 지연행동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수행회피 성취목표( $\beta = .68, p < .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주. \*\* $p < .01$ , \*\*\* $p < .001$

그림 6.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가 높을수록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행회피 성취목표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beta = .53, p < .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은 학업적 지연행동( $\beta = .29, p < .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적 지연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쟁모형4의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랩은 Shrout와 Bloger(2002)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매개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자료( $N = 198$ )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beta = .36, p < .001$ ),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beta = .16, p < .05$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행회피

표 5.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수행회피 성취목표	.68***		.68***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36*** (.21~.51)	.3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학업적 지연행동		.11* (.02~.22)	.11*
수행회피 성취목표 →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53***		.53***
수행회피 성취목표 → 학업적 지연행동		.16* (.02~.30)	.16*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 학업적 지연행동	.29**		.29**

$N = 198$ , \* $p < .05$ , \*\*\* $p < .001$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beta=.11, p<.05$ )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학업적 지연행동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 지향성,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완전매개하고, 자기구실 만들기가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모형이었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고,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학업적 지연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화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실패에 대한 수행회피 성취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미화, 류진혜, 2002; 추상엽, 임성문, 2009; Stoeber et

al., 2008)과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고영춘, 2007; 김연희, 2006; 송재홍, 2008; Urdan & Midgley, 2001), 마지막으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Beck, Koons, & Milgrim, 2000; Eerde, 2003; Steel,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한다는 추상엽과 임성문(2009)의 연구 또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사이를 수행회피 성취목표가 부분매개한다는 오지은, 임성문과 추상엽(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믿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중요한 타인들이 만족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사랑받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Hewitt & Flett, 1991), 무능력이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평가를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면서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지향하여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회피경향성이 성공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사용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학업장면에서의 미루는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지연 행동을 상

담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신념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수행회피 성취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가속화하고 학업적 지연행동에 이르게 하는 내적 과정임을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들이 스스로 비효율적인 방법을 멈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강박적 행동,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신건강 지표가 더 부정적이고 (Jing, 2011) 장기적인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Zuckerman, Kieffer, & Knee, 1998)을 고려한다면 수행을 회피하려는 자신의 동기와 부적절한 전략의 사용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내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점검하고 이런 전략들의 유용성을 인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약속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선택하거나 폭음, 신체증상, 시험불안 등 내담자가 보이는 다양한 문제행동 혹은 증상이 사실은 실패했을 때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의식적·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음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처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왜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인해 학업적 지연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학업지연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성취목표 지향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장면 뿐만 아니라 수업장면이나 기타 활동장면에서 당장 주어지는 성과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더 시도해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와 실수, 부족함에 대해 엄격한 평가보다는 결과에 상관없이 시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어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타인의 기준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낮추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개인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수준을 낮추려는 장기적인 개입과 함께 수행회피 성취목표를 낮추기 위한 직접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연행동 중 학업영역에서의 지연행동은 다른 연령층보다는 대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McCown & Robert, 1994; 서은희 2006에서 재인용)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0),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윤숙경, 1997).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변인간의 관계를 대학생집단에서도 타당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지연 문제

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중심으로 두 변인 간에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수여서 학업적 지연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간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를 함께 고려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모형과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쟁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가진 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을 낮추기 위한 상담과 수업 장면에서의 개입방법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어떠한 경로로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변인 각각의 관계가 아닌 전체 모형에 대한 구조적인 탐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경우 국내에서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적 지연행동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고려한 상담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남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위의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높은 기대와 성취압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성인들 또한 학업적 지연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새롭게 밝혀지는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기존에 밝혀진 변인들 사이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얻어졌다. 자기 보고식 평가는 개인이 지각하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솔직하지 않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응답자의 경우 더욱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업적 지연행동에 대한 자기관찰법이나 행동측정법 등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형성이 학업지연행동에



-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고영춘 (2007). 화학교과의 학습동기요인과 학습 전략 사이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유미 (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 행동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 서울: 학지사.
- 김아름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06). 목표지향에 따른 학생이 지각한 학업지지 교사행동, 자아존중감이 자기손상전략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經營學研究*, 36(4), 897-923.
-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희 (2006). 시험불안과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이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재우, 권정혜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5-119.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부 (2010). *서강상담연구*, 3, 99-132.
- 서은희 (2006).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재홍 (2008). 대학생의 학업 자해행동 예측에 있어서 자아개념 명료성과 성취목표 및 교실목표구조 지각의 역할. *教育心理研究*, 22(1), 35-53.
- 오지은, 임성문, 추상엽 (2011).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35-155.
-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11).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평가 장면의 회피전략 간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8(3), 179-213.
-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숙경 (1997).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호 (2011). 지연동기 척도 개발 및 지연동기와 심리적 부적응간 경로 모형 연구. *가톨릭*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라 (2004).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동기관련문제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임성문, 강미정 (2006).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사회과학연구, 23(1), 119-136.
- 조민경 (2010).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성패에 따른 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6).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황지희 (2007).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t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rglas, S., & Jones, E. E. (1978). Drug choice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response to noncontingent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05-41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L. B., Koons, S. R., & Milgrim, D. L. (200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al procrastination: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5), 3-13.
- Eerde, W. V.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401-1418.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mmett, Rita (2000). *The Procrastinator's Handbook Mastering the Art of Doing It Now*, NY: Walker & Company.
- Flett, G. L., & Hewitt, P. L. (2006). Positive versus negative perfectionism in psychopathology: A comment on Slade and Owens's dual process model. *Behavior Modification*, 30(4), 472-495.
- Garcia, T. (1995). The role of motivational strategies in self-regulated learning. *New Direct*,

- Teach. Learn.*, 63, 29-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iggins, R. L., & Harris, R. N. (1988). Strategic "alcohol" use: Drinking to selfhandicap.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91-202.
-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67-178.
- Hu, L., & P. M. Bentler.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ing, K. (2011).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lf-handicapping o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2011 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ency Management and Management Sciences*, art. no. 6015815, 847-850 0
- Jones, E., & Rhodewalt, F. (1982). *Self-handicapping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 Jöreskog., K. G.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a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294-316). Newbury Park, CA: Sage..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Martin, A. J., Marsh, H. W., & Debus, R. L. (2003). Self-handicapping and defensive pessimism: A model of self-protection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8, 1-36.
- Martin, T. R., Flett, G. L., Hewitt, P. L., Krames, L., & Szanto, G. (1996). Personality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health symptoms: A test of a self-regul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264-277.
- McCown, W., & Robert, R. (1994). A studies of academic and work-related dysfunctioning relevant to the college version of an indirect measure of impulsive behavior. *Integra Technical Paper 94-28*, Randor, PA: Integra, Inc.
- Onwuegbuzie, A. J. (2000). Academic procrastinators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5), 103-10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olomon, Laura J. & Rothblum, Esther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Stoeber, J., Stoll, O., Pescheck, E., & Otto, K.

- (2008).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in athletes: Relations with approach and avoidance orientations in mastery and performance goal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102-121.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0).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58(2), 443-464.
- Urdan, T., & Midgley, C. (2001). Academic Self-Handicapping: What We Know, What More There is to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115-138.
- West, S. G., J. F. Finch, & P. J. Curran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56-75.
- Zuckerman, M., Kieffer, S, C., and Knee, C. R. (1998). Consequences of self-handicapping: Effects on coping, academic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19-1628.

1 차원고접수 : 2012. 3. 30.

수정원고접수 : 2012. 6. 15.

최종게재결정 : 2012. 6. 1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ategy**

**Bo Ram Park**

**Nan Mee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handicapping strateg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chosen from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nam-do and Seoul and they receiv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handicapping strateg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er constructed one research model and 4 alternative models to navigate the most suitable explanation for data and verifi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ategy significantly affect academic procrastination positively. The results of SEM showed that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ere completely mediated by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ategy.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was discussed and the limit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in the end.

*Key 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handicapping strategy, academic procrastination*